



제목	Women in Ancient Persia (559-331 BC)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larendon Press
발행일	1998. 7. 16.
저자	Maria Brosius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80
ISBN 또는 ISSN	978-0198152552

내용 요약

고대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탐험은 유명하다. 반면 페르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는 생소한 편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르다마(Irdabama)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여인은 말하자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대규모의 포도주와 양조 사업을 한 대단한 지주였다. 『고대 페르시아의 연인들(559~331BC)』은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여성들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 최초 왕조의 영토는 아시아 Minor에서 India 까지 아우른다.

페르시아 역사를 기술한 그리스 역사가에 의하면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에 경제적·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들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여인의 숫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그러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모아 엮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브로셔(M. Brosius)는 이 일을 감행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고대 페르시아 왕실의 여성이다. 하지만 이 책의 의의는 무엇보다 왕실 여성이 아니면서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을 최초로 소개했다는 점이다. 근동의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하고 그리스어로 된 참고 문헌의 출처를 철저히 재검토함으로써 저자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풍부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공한다.